

한국생약보

민고 찾을 수 있는곳!

한국생약협회 직영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고품질의 국산한약재만을 엄선, 소비자
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TEL: (02)967-4984

발행인 겸 편집인 임연학
인 쇄 인 장우환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TEL: 967-8133 FAX: 965-0643

1999년 8월 1일

THE HANKOOK-SAENGYARK BO

(1975년 6월 20일 창간) 제235호

“한약재 규격품 의약품으로 보긴 어려워”

중독우려 · 수치법제 품목만 별도 관리 방침

규제개혁위원회

현행 규격화 대상 514개 한약재를 재분류하여 주된 용도가 의약품인 것은 규격 품유종과 품질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제조업 등록업소에서만 제조하도록 하되 독성우려, 수치법제 등의 품목은 품목 신고 후 생산토록 하는 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외함께 국내에서 생산재 배되는 품목중 중독우려가 없는 품목은 자가규격품으로 인정하거나 혹은 규격화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안도 긍정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한약재 규격화 제도 시행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는 그동안 농림부, 복지부, 식약청,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의 수차례 걸친 논의과정을 거친 끝에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3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규제개혁위가 내놓은 개선 방안 중심내용은 현행제조업소의 허가기준중 약사고용 및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등록제로 전환, 신규희망자, 기존의 생약가공공장 및 한약도매상을 등록제조업소로 진입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

따라서 규격품이라고 해서 이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 볼수는 없다는 것이 규제개혁위측 견해다. 의약품으로서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 품목(독성우려 수치법제 등)만 별도의 품목신고 기준을 정하여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제조업소 제조의 농



▲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국산한약재 유통현황파악을 위해 경동약령시장을 방문. 생약협회 국산한약재 상설매장을 돌아봤다.

민등의 일정범위 자가규격 인정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중독우려가 없는 품목중 일정범위를 자가규격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규격화 대상 품목에서 처음부터 제외하여 농산물 품질검사 후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하는 방안 등 2개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자가규격의 인정 대상품목은 보건복지부가 규격기준을 반영 관련전문가 생산단체, 농림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방침. 만약 이 안대로라면 생약재배 농민들이 직접 생산 가공 포장한 약재도 규격기준에 적합할 경

우 규격품으로 인정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은 “한약도매상을 통해서만 규격품이 유통되도록 하고 생산자의 직접 한방의료기관 유통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결은 그리 쉽지않을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국산한약재의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한약재 유통을 위해 등급화(성상, 수분함량, 물질함량 등)를 바탕으로 한 품질규격화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며 「약사법」체제속에 혼재하고 있는 한약재의 개념을 정립하여 별도 한약(재) 관련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방안 내용은 오는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재 논의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개선방안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상황을 오는 1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문정희〉

수입한약재 허위표시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수입 한약재와 인삼 등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거나 중국산 당귀, 황기, 오미자 등을 식품으로 수입해 한약재로 둔갑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식품용으로 수입된 황기, 오미자, 구기자, 인삼 등이 한약재로 둔갑 유통되는 불법행위 근절 차원에서 경동시장 및 인삼상가, 대구약령시장 등에 대해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사법경찰관 35개반(70명)을 투입, 집중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63개 업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원산지 허위표시업체 19개 업소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4개 업소는 1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 면 안 내

- 중탕한약 포백제 불검출 3면
- 유통·시세정보 4면
- 특별기고 /
서유럽에서 인기있는 생약재 6면
- 제91차 이사회 이모저모 7면

새로운 밀레니엄, 2천년대의 안정된 선택!

당신의 밝은 노후, 「생약인 우대연금보험」이 함께 합니다.

「생약협회」 회원 및 가족만을 위한
우대연금보험 개발·시판 조인
단법인 한국생약협회 1999. 6. 2



한국생약협회 회원 및 가족만을 위한
「생약인 우대연금보험」 탄생!
밀레니엄상품으로 최고의 수익률 자랑!

'99. 6. 28. 한국생약협회,
교보생명과 개발·시판 조인식 거행!

한국생약협회는 회원 및 가족이라든
누구나 밝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약인 우대연금보험」을 개발·시판
'99.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생약협회」 회원 및 가족만을 위한 혜택

- 1) 한국생약협회 회원 및 가족만을 위하여 특별히 주문 제작된 상품임
- 2) 연금보험상품 최고의 수익률임
 - 부리이율 : 약관대출이율 - 1.5%
 - 고액의 생존연금 지급
- 3) 다양한 설계가 가능함
 - 상속연금형 : 원금은 상속자금으로 활용하고 이자만으로 연금혜택
 - 종신연금형 : 종신토록 연금지급
 - 확정연금형 : 일정기간 고액의 연금수령 가능
- 4) 입출금이 자유로운 밀레니엄 보험상품임
 - 여유자금을 고이율로 부리 가능
 - 내집마련, 자녀학자금 등 긴급자금 필요시 자금인출 가능
- 5) 보험료 납입이 자유로움
 -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
 - 보험료 납입시기도 계약자 편의대로 자유로이 납입
- 6) 일시납 불입시 1년후부터 연금수령 가능
- 7) 보험료 할인혜택 부여(매월 납입보험료의 1%)
- 8) 5년 초과시 이자소득세 전액면제

한국생약협회 교보생명

* 문의처: 본사 특수단체영업팀(02)721-2348, 개인영업팀(02)721-2236, 강북지역본부(02)2290-4134, 강남지역본부(02)3473-8070, 경인지역본부(032)430-4130, 부산지역본부(051)811-7130, 대구지역본부(053)620-7508, 중부지역본부(042)229-5503, 호남지역본부(062)510-6530